

여수엑스포 3년 앞으로

준비 어디까지 왔나

민資 유치 잇단 불발 시설축소 우려

주요 전시관 하반기 착공, SOC는 순탄 10여개국 참가 통보...100개국 유치 박차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3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공포와 함께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종합기본계획안이 마련되는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갖춰졌으나 구체적인 대형사업들은 부진하다.

또 조직위원회를 이끌었던 장승우 조직위원장도 건강상 이유로 사퇴한 뒤 위원장 공석이 2개월로 접어들어 대다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성공 개최까지는 앞으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민자유치 난항=잇따른 민자유치 실패가 여수 엑스포 성공개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박람회 타운과 아쿠아리움, 호텔(콘도), 유원시설(놀이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했지만, 현재 박람회 종사자 거주공간으로 사용될 박람회 타운(1천250가구) 사업자(대한주택공사)만 선정된 상태다.

반면 호텔(200실)과 유원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민자유치 사업 중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자도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아쿠아리움을 직접 짓고, 박람회 유원시설은 박람회 기간 동안 놀이마당을 운영하는 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쿠아리움 규모가 예초(수족관 규모 7천) 규모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시설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민자사업자들의 관심도가 이처럼 낮은 이

유는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자금줄이 막혀 있고, 일부 사업자들은 2012년 박람회 이후 민자시설의 경제성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자유치가 쉽게 이뤄지지 않자 여수시는 최근 '호텔·아파트 패키지 사업'이라는 특혜 조건을 내세워 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그 결과 삼성지위드 건설(주)과 WTC 광양만 여수프로젝트 금융투자(주) 등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다.

여수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이들 업체의 사업 추진능력 등을 평가해 오는 18일 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가국 100개국 유치 목표=현재까지 참가입장을 공식 통보해온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에맨·리비아·터키 등 중동 국가를 비롯한 일본·파나마·우크라이나·가이나나 등 10개 국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도 참가 의사를 전해왔다.

조직위는 100개 국가 5개 국제기구 유치를 목표로, 올해만 50개국의 참가를 확정짓고 내년 5월까지 참가국을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BIE(세계박람회 기구) 회원국 152개국 및 26개의 국제기구를 상대로 참가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국내외 종합홍보마케팅대행사를 선정하고 국내외 박람회 개최 붐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전시관,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순탄=조직위는 지난 4월 박람회장 공원 조성사업 현상설계 공모와 주요 전시관별



2012년 5월 12일부터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릴 여수 신항 일대 조감도. 여수엑스포 개막 3년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대형 민자사업 유치와 국제홍보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현상 공모를 시작했다. 박람회장 공원조성 사업은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전시관은 올 10월 당선자를 선정해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전시관 등 주요 시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만 1조7천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여수~순천 자동차 전

용도로 건설 ▲전라선(익산~순천~여수) 철도 복선화 사업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건설 ▲전주~광양,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 등 현재 모두 11개의 교통 관련 대형 SOC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와 여수시는 11개 SOC 사업이 완료되고 해상교통망과 환승주차장 등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박람회 기간에 여수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큰 혼잡없이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엑스포 '100만 서포터즈' 출범

내일 발대식...전국 홍보 네트워크 구축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3년을 앞두고 여수에서 서포터즈 발대식 등 대대적인 홍보행사가 열린다.

10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여수시 박람회 홍보관 앞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태호 경남도지사, 김병일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성근·주승용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여수세계박람회 서포터즈·여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희망 세박(世博) 100만 서포터즈' 발대식 및 마스코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해양탐사 및 수중정화작업, 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한 가드캠페인 등의 식전행사와 2012 희망 세박(世博) 100만 서포터즈 발대식과 마스코트 선포식 등의 순

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일까지 3년을 앞두고 국민 홍보 서포터즈 출범식을 통해 여수엑스포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적인 홍보 서포터즈 네트워크를 가지기 위

해 마련됐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열고 국동항 해양관광 문화복합단지 등의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박람회 준비상황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지원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발 기준 및 신청 절차

6월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구별 소득, 자산 등이 참가 자격의 주요 판단기준이다. 참가 대상자로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실직자, 휴·폐업자들이 우선 선발된다. 행안부는 11일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발기준 점수표를 광주시와 전남도에 보내, 시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18세 이상 실직, 휴·폐업자 우선

◇선발 기준=10일 공개된 행안부의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르면 참가자를 선발하는 가장 큰 배점항목은 소득, 세대자산, 여성가장 여부, 청년 실업자 여부 등이다. 신청자는 부문별 가중치에 따라 최고 130점까지 받을 수 있다. 평가점수에서 30점이 배점된 소득 부문은 건강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분류, 각각 30점, 20점, 10점, 0점이 매겨진다. 세대별 재산은 재산세 납부액기준으로 모두 4등급으로 나뉘며 30~0점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여성가장(세대주)의 경우 15점, 부양 가족수에 따라 3명 이상(15점), 2명(10점), 1명(5점)을 받는다. 청년실업자가 가정에 있을 경우 10점이 얻게된다.

반면, 부문별 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점수에서 최고 35점을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장 큰 감점인 -30점 SOC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와 여수시는 11개 SOC 사업이 완료되고 해상교통망과 환승주차장 등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박람회 기간에 여수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큰 혼잡없이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가 신청 절차, 어떤 일 하나=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실직자, 휴·폐업자들

은 자치구,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1일 행안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이달 중순에 부터 참가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전국 백두대간 환경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 일제정비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 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학교 주변 안전시설 정비 등 '전국 공통 20개 생산적 사업'에 투입된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도 적용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강령규 2차관을 총괄책임관으로 하는 '희망근로사업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장·차관 정기 현장점검 등 사업추진 상황도 점검해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광주시는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친 광주시는 12일제 위원회 회의의 소집한 뒤 희망프로젝트 사업 선정, 임금의 상환권 지급 비율, 선발 기준 표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핵심사업인 만큼 행안부와 지자체의 행·재정력을 총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발 점수표			(자료:행안부)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가중치 130점
소득	4등급분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30(20, 20, 10, 0)	
세대재산	4등급분류(재산세 납부액 기준)	30(20, 20, 10, 0)	
세대주	유·무	10(10, 0)	
여성가장(세대주)	유·무	15(15, 0)	
부양가족수	3명 이상, 2명, 1명, 없음	15(15, 10, 5, 0)	
승용차소유	자동차 납부액 기준 24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10(10, 0)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가족	유·무	5(5, 0)	
청년실업자 여부	유·무	10(10, 0)	
기타 지자체 판단	지자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5(5, 0)	
			감점사유 -35점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도 포기자	공공근로사업, 노동부 복지부 취업지원사업 등	-30	
기타 지자체 판단	지자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5	

조이 여행사
234-3222

북경 3박4일 (0인) **379,000**

상해 항주 소주 4일 (0인) **389,000**

제주 3박3일 패키지여행

88,000

항공+선박 **138,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여행

(남자) 4W **329,000** (아마니미릉나무콘도)

(여성) 4W **419,000** (특급호텔)

대마도 3일 **379,000**

제주항공 초특가

유일항공권 **565,000**

605,000

남가시계 제주특별자치도 3일 **655,000**

도시가 나라 2도에서 첫부터 한번에 **775,000**